

초국적기업의 사회적 착근성에 관한 소고: 사업체계론을 중심으로

이재열* · 박경환**

Understanding the Societal Embeddednes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From the Business Systems Perspective

Jae-Youl Lee* · Kyonghwan Park**

요약 : 본 논문은 경제지리학의 ‘관계적 전환’에 따른 지역발전 논의에서 초국적기업의 사회적 착근성에 대한 이해와 설명의 결핍을 문제화한다. 기존 지역발전 문헌에서는 초국적기업의 해외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전략적 커플링에 선행하는 출신국에서의 사회, 문화, 제도적 기반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본 논문에서는 국가 중심의 신제도주의적 경제사회화 담론인 사업체계론의 유용성을 검토한다. 사업체계론은 과점적 이익의 지리적 확장에만 주목했던 전통적 초국적기업 담론과는 달리 기업 활동의 착근성을 국가 스케일에서 형성되는 공식/비공식적 제도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사업체계론이 관계적 지역발전의 문제를 초국적기업의 사회적 착근성과 결부시켜 탐구하기에 유용한 개념적 지침이라고 판단하며, 사업체계의 유형과 사업체계가 기업의 초국적 활동에 주는 영향도 살핀다. 아울러 경제지리학 내에서의 비판을 수용하며 사업체계론을 활용함에 있어 연구자가 주의해야할 사항도 밝힌다.

주요어 : 초국적기업, 착근성(배태성/뿌리내림), 사업체계론, 지역발전, 관계적 전환

Abstract : This paper problematizes the contemporary discussion of relational regional development because it lacks any conceptual device that can shed lights on the societal embeddednes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 and also addresses the problematic with a neo-institutionalist discourse on national business systems. Unlike pre-existing conventional views centered on the geographic expansion of oligopoly power and profits, the business systems literature emphasizes the association between firms' transnational operation and (in)formal institutions in their home country. For the reason, this article considers the frame of business systems to be a useful conceptual guide that helps examine the nexus of relational regional development and TNCs' *societal* embeddedness. It then reviews six ideal-types of business systems from a cross-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 and suggests their implications on TNCs' global-local operations, and on concrete case studies in Korea as well. In line with critical reviews from some economic geographers, some caveats in the adoption of business system literature are also outlined.

Key Words : Transnational corporations, Embeddedness, Business systems, Regional development, Relational turn

I. 서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공식적 제도에 토대를 둔 국가 단위의 경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1980년대 이후 제3이탈리아나 실리콘밸리와 같이 지역적 단위에서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leejaeyoul@chungbuk.ac.kr)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park3@gmail.com)

의 집적경제에 토대를 둔 신흥 ‘산업지구’들의 발전상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제지리학이나 경제사회학과 같은 ‘이단’경제학 분야에서는 지역적 스케일에서 벌어지는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특성과 지역 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파악했다. ‘캘리포니아 학파’로 칭해졌던 이들은 특히 특정 지역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와 네트워크를 외부경제, 거래비용, 착근성, 범위의 경제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스케일이 자본 축적의 포스트포드주의적 패러다임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보았다(Storper, 1997; Scott, 1998; MacLeod, 2001; Scott and Storper, 2003).¹⁾ 다른 한편 제3이탈리아 지역을 사례로 한 유연적전문화론자들 또한 지역 내부에서의 독특한 산업분위기와 협력 관계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Piore and Sabel, 1984; Murray, 1987; Sable, 1988; Amin, 1989). 대체로 이런 관점은 민족국가의 쇠퇴가 지역의 부흥으로 대체된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부존자원을 비롯한 지역의 물적 토대와 환경적 조건을 강조했던 과거의 지역주의와 구별하여 흔히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라 지칭되곤 했다.

그러나 신지역주의 관점은 세계화가 진전되고 금융화가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지역 발전과 변화의 역동적인 현실을 분석, 이해, 설명하기에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Doreen Massey의 저술에서와 같이 지역을 내부와 외부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적, 공간적 국면에서의 이질적 관계들의 묶음(configurations)으로 이해하려는 ‘관계적 지리’의 관점이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과 병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박경환, 2014; 2016; 박경환 등 역, 2016).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10여 년간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네트워크의 관계망 속에서 지역발전의 개념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경제지리학계 내에서 연관 학문과 교류 속에 폭넓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Jones(2014:606)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역이나 다른 공간적 재현을 실질적인 행위자인 것처럼 다루던” 신지역주의 관점은 이미 “전통적인” 방법론이 되어버렸고, ‘제도적 집약(institutional thickness)’, ‘비거래 상호의존성(untraded interdependencies)’, ‘로컬 역동성(local buzz)’ 등의 ‘영토적(territorial)’ 착근성을 근간으로 했던 지역발전에 대한 설명 방식의 의미와 가치는 상당히 퇴색해버렸다(이재열, 2010; 2016). 가령, 착근성에 관한 논의는 국지적

환경, 제도, 문화를 강조함으로써 공간성을 영역적인 것이라고 파악하지만, 실제 모든 ‘로컬’은 궁극적으로 외부와 관계적으로 열려 있는 다공질적 트랜스로컬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착근성이 영역화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제적 수행을 설명하는 독립변수가 될 수는 없다(박경환, 2014).²⁾ 그래서 현재의 경제지리학자들은 다양한 비영토적(non-territorial)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이해하고 설명하려 노력하고 있다(Boggs and Rantisi, 2003; Yeung, 2005; Bathelt, 2006; Jones, 2014). 예를 들어, ‘암묵적’ 지식의 학습과 확산은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가정은 버려졌고, 초국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 집단이나 기업 사이에 형성된 ‘글로벌 파이프라인(global pipelines)’이 암묵적 지식을 획득하고 확보하는데 보다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논의가 폭넓게 받아들여진다(Bathelt *et al.*, 2004).

이와 같은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론적 변화는 인문지리학 전반에서의 관계적 전환과 마찬가지로 ‘경제지리학의 관계적 전환’으로 통칭된다(박경환, 2014). 그리고 이런 논의의 발전에 있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s: GPNs) 연구자들이나 정성적 국가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이와 관련된 담론 및 지식 형성에서 유의미한 기여를 했다(Hess and Yeung, 2006; 이용숙 · 이돈순, 2015; 이재열, 2016). ‘전략적 커플링(strategic coupling)’은 이 과정에서 등장한 핵심적인 개념인데, “영토화된 관계의 네트워크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사이의 상호작용”(Coe *et al.*, 2004:469)을 의미하고, 지역적 자산과 초국적기업의 연결망으로 생길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강조한다. 좀 더 최근에 MacKinnon(2012)은 ‘진화’경제지리학 관점에서 전략적 커플링의 경로의존적 성격 주목하며, 기존 논의를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사회, 문화, 제도적 조건의 따라 지역이 초국적기업과 맺는 전략적 커플링에서 마찰과 파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커플링은 일시적이며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지역과 초국적기업 간의 전략적 ‘해체(decoupling)’와 ‘리커플링(re-coupling)’ 또한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논문도 전략적 커플링과 같은 관계적 관점에서 비롯된 지역발전 논의에서 한 가지 맹점을 심문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구체적으로 관계적 지역발전에서 초국적기업의 ‘사회적’ 착근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사실을 문제화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³⁾ ‘공간성’을 기준으로 착근성은 크게 ‘영토적(territorial)’ 착근성, ‘네트워크(network)’ 착근성, ‘사회적(societal)’ 착근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Hess, 2004; MacKinnon and Cumbers, 2011), 기존 경제지리학 문헌에서 처음 두 가지 범주의 착근성만을 중심으로 관계적 지역발전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⁴⁾ 전략적 커플링 개념 자체도 초국적기업이 지역의 자산과 제도에 뿌리 내리는 과정, 그리고 지역발전의 주체들이 초국적기업 네트워크에 탑승하여 연결되려는 노력에만 초점을 맞춰 설정되었다(이재열, 2016). 반면, 전략적 커플링에 선행하는 초국적기업의 사회적 착근성은 관계적 지역발전 논의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래서 초국적기업의 사회적 착근성과 전략적 커플링 간의 상호작용은 관계적 지역발전 논의에서 여전히 미궁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Hess(2004:176-177)는 중요한 단서 하나를 제공하는데, 사회적 착근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그의 설명에 잘 나타난다.

사회적 착근성은 행위자의 지리적 출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행위자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다... 이 착근성의 유형은 Karl Polanyi(1944)가 「거대한 전환」에서 제시한 착근성 개념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다. Polanyi는 문화적 측면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의 논의가 행위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문화적 각인의 역사에 대한 명백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착근성은 또한 ... (중략) ... Whitley와 그의 동료들이 주장하는 국가 사업체계(business systems)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논의에 착안해 본 논문에서는 Whitley(1992; 1998; 2000)의 ‘사업체계론’이 초국적기업의 사회적 착근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의를 펼친다. 본 저자들은 두 가지 이점을 들어 사업체계를 활용 가치가 높은 기업 분석 담론으로 이해한다. 첫째, 사업체계론에서 국가적으로 차별화된 기업 활동의 사회적 착근성 논의는 초국적기업의 지리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보탬이 된다. 그래서 사업체계론이 전략적 커플링 탐구에서 초국적기업과 지역 간의 접점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 장점은 사업체계론 자체의 지역적 착근성과 관련

된다.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살필 것이지만, 사업체계론은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 기업의 ‘질적’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하나로 칭할 수 있다(Whitley, 1992).⁵⁾ 이러한 지리적 원류 때문에 사업체계론은 우리나라 기업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⁶⁾ 후자의 이점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본 논문에서는 전자와 관련된 사항만을 집중 조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세 절로 구성된다. 다음 절에서 초국적기업에 대한 경제학 및 경영학 담론의 진화를 Hymer(1960), Vernon(1966), Bartlett and Ghoshal(1990), Dunning(2001)을 중심으로 살피고, 모든 논의에서 초국적기업의 사회적 착근성에 대한 논의가 결여된 점을 강조할 것이다. 즉, 상기 학자들의 초국적기업 관련 논의에서 ‘몰(沒)’공간성을 비판할 것이다. 그 다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사업체계론을 상세히 살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체계론의 주요 계보적 특성을 검토하고, 여섯 가지 사업체계 유형(분열형, 산업지구형, 구획형, 협력형, 고도조직형, 국가주도형)을 분류하며 미국, 독일, 일본을 예시하여 사업체계와 초국적기업의 사회적 착근성을 연계하여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 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며, 사업체계가 초국적기업의 사회적 착근성과 지역발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유용한 개념적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II. 초국적기업에 관한 학문적 담론의 진화

현대적 의미에서 초국적기업에 관한 담론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은 경제학자 Hymer(1960)와 Vernon(1966)이다. 이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초국적 기업은 단순히 자본의 차익 거래를 위한 조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초국적기업은 자기자본을 수익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이전하는 정도로만 이해되었기 때문이다(Jones, 1996). 그러나 초국적기업 연구의 선구자인 Hymer(1960)는 초국적기업이 자본과 금융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기술과 지식, 경영 기법, 숙련된 인력 등 다양한 ‘자원’을 이전시킴으로써 진출한 국가의 토착기업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누리는 주체로 초국적기업을 개념화했다.⁷⁾ 그리고 그는 불완전경쟁 시장 하에서 초국적기업

이 기업 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거래 비용의 상승을 개발도상국에 대한 착취로 상쇄시킨다고 이해하며 초국적 기업의 활동에 비판적 견해도 제시했다. 하지만 기업이 동원하는 자원은 출신 국가에서 비용, 금융, 기술, 판매망 등에서 형성된 우위를 바탕으로 이전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Hymer의 초국적기업 개념화는 본국의 과점적 이익과 지위의 지리적 확장으로 설정된 측면이 다분했다.

Vernon(1966)의 개념화는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를 바탕으로 하지만 기본적 논리는 Hymer와 비슷했다. 그는 기술혁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진국 태생 기업들이 자국 내 시장에서 경쟁 기업의 등장으로 제품이 성숙 및 쇠퇴 단계에 이르게 되어 과점적 지위가 약화되면, 기업이 처음에는 수출 전략을 취하지만 나중에는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초국화 전략을 취한다고 보았다. 기업의 초국적화와 관련하여 그는 제품 생산에 있어서 표준화가 저비용의 노동비에 대한 수요를 유발한다고 보면서, 미국으로부터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기업들에 주목하였다. Hymer는 기업의 공세적인 성향에 그리고 Vernon은 수세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는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두 학자 모두 일정 정도의 과점적 우위를 장악하고 이를 지리적으로 확장하려는 대기업 조직을 중심으로 초국적 기업을 개념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Kristensen and Zeitlin, 2005). 그래서 Hymer와 Vernon의 논의를 일방향적이고 선형적인 대기업 중심의 초국적기업 담론이라고 평할 수 있다.⁸⁾

Hymer-Vernon의 전통과는 다르게 Bartlett and Ghoshal(1990)은 기업과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 사이의 상호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초국적 기업을 개념화했다. 그들에 따르면, 초국적화 전략은 기업이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로 인해 기업은 자국에서 이용이 불가능한 ‘역량’을 학습하여 조직 혁신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식론적 차이 때문에, Hymer-Vernon 전통과 구별되어 Bartlett and Ghoshal(1990)의 초국적 기업 논의는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 관점으로 칭하여진다. 전자와 구분되는 이 관점의 가장 큰 특징은 초국적 기업이 새롭게 진출하는 국가와 지역에서 자원과 역량을 학습하여 새로운 기업 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진출 국가와 지역을 초국적 기업에 내재하는 자원과 역량의

전개 대상으로만 여겼던 Hymer-Vernon의 전통과는 달리, Bartlett and Ghoshal(1990)은 진출 국가와 지역의 영향력을 부각시키며 기업 자산과 자원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과점적 이익의 확장과 조직학습 관점은 모두 미국과 서유럽 초국적기업의 신규(greenfield) 해외직접투자를 바탕으로 형성된 담론이지만, 각각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등장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거대 기업의 초국화 과정을, 후자는 1970-1980년대를 걸쳐 초국적기업들이 중시하기 시작한 현지화 및 토착화의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이러한 상이성에 주목하며 Richard Dunning(2001)은 두 관점을 절충하여 결합한 ‘OLI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초국적기업은 조직적(Organizational), 입지적(Locational), 내부화(Internalization)의 이점을 가진다는 논의이다. ‘조직적 확장의 이점’은 세계적 확장으로 규모 및 범위의 경제와 관련된 우위를 초국적기업이 발휘할 수 있다는 것으로, Hymer-Vernon의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나머지는 조직학습 관점을 수용하여 마련된 것인데, ‘입지적 이점’은 초국화 과정에서 상이한 국가와 지역의 공급망 네트워크의 역량, 소비자의 기호 등을 이해하여 학습의 기회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현지 적응과 학습 경험을 기업 조직 전체의 자원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내부화 이점’이다. 절충주의 이론인 OLI 패러다임에는 단계적 발전의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Hymer 및 Vernon의 과정적(processual) 이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 조직의 지리적 확장은 다양한 입지적 이익의 학습 기회로 이어지고, 학습 경험을 결합하고 내부화하여 초국적기업은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초국적기업에 관한 경제학 및 경영학 담론의 초점은 과점적 이익 확보와 조직망의 지리적 확장에서 입지 환경에 대한 학습과 적응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입지의 지리적 조건이 현재는 초국적 기업의 중요한 분석 과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핀 논의들은 대체로 단일 거대 기업의 초국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단계는 ‘지리적 확장→학습→내부화’의 순조롭고 매끄러운 과정으로 이해된 측면이 많다. 반면, 다른 곳에 위치한 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조직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이해의 단서를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를 실행하는 투자국의 기업이 추구하는 자본

축적 전략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국의 로컬 자본 축적 전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신규 해외직접투자가 우월했던 시기에는 지금까지 살핀 논의들의 유용성이 높았을지 모르나, 기업의 초국화 전략에서 글로벌 아웃소싱이나 인수합병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한 듯하다. 출신이 다른, 곧 상이한 사회적 착근성을 가진 기업 간의 초국적 상호작용에 대하여 적절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사회적 착근성에 관한 세밀한 논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 절에서는 Whitley(1992; 1999)가 성립하고 발전시킨 사업체계론이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논의한다.

III. 사업체계와 초국적기업의 사회적 착근성

1. 사업체계론의 계보적 특성

사업체계론은 기업의 경제적 활동과 관계가 조직 및 통제되는 방식에 대한 '비교' 경제사회학 담론이고, Whitley(1998)가 사업체계론의 성립과 발전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서술에 앞서 사업체계론의 세 가지 '계보'적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업체계론은 '신'제도주의적 경제사회학 담론이다. 경제사회학에서 신제도주의는 국가와 정부기관의 공식적 제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던 전통 제도주의 접근법과 구별되며, 비공식적 영역의 인지적, 문화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제도의 문제를 분석과제로 상정하는 사조이다. 이런 관점에서 DiMaggio and Powell(1991:8)은 신제도주의 경제사회학을 "주류 경제학과 같은 보편적인 이성적 행위자 모델을 거부하고, 제도를 독립변수로 여기며, 인지적이고 문화적인 설명을 추구"하는 분석의 양식으로 정의했다.

사업체계론의 신제도주의적 성향은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Whitley(1992)의 한국, 일본, 타이완, 홍콩 기업의 성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동아시아 중심의 근거이론적 태생을 사업체계론의 두 번째 계보적 특성으로 언급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Whitley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문화적 유산과 산업화

단계에서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동아시아의 사업체계가 국가적 상이성을 띄고 성립되었다고 논의한다. 한국의 경우, 재벌 중심의 수직적 사업체계는 조선시대 양반제도라는 세습적 피라미드 사회계층 구조와 박정희 시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고, 그보다 수평적인 일본의 계열사(keiretsu) 사업체계는 도쿠가와 시대의 부족 네트워크와 흡사하고 2차 대전 후 일본에서 피라미드 구조를 억제했던 미국의 대외정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는 다르게 타이완과 홍콩에서 형성된 대가족 중심 사업체계는 중국에서 국가의 정치권력 독점으로 인해 가족이 유일한 사회 조직 구성의 기반이 되면서 출현했던 것이라고 Whitley(1992)는 강조한다.

이와 같은 사업체계론의 사회적 착근성에 대한 주목은 세 번째 계보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미 중심의 '자유 시장 경제(liberal market economy)'를 다른 경제시스템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 여겼던 풍조에 정면 도전하는 '비판적' 담론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체계론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1980초부터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를 필두로 신자유주의에 제도적 기반을 둔 경제의 우월성이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Whitley(1992)는 당시에 고정장 상태에 있던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경제발전에서 근간이 되는 제도적 특성은 다양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사업체계론에 대한 논의는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지역으로 확대되어, 영미와는 다른 제도적 기반 하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는 경제에 주목했다(Whitley and Kristensen, 1996). 이처럼 경험적 연구 성과를 축적하며 사업체계론은 세계화 경제의 수렴성 신화를 불식시키고 기업 활동의 다양성을 밝히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2. 사업체계와 초국적기업의 사회적 착근성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사업체계의 다양성은 조직화 양식에 따라 표 1과 같이 네 가지 '이념형'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Whitley, 1999; 2000).⁹⁾ 구체적으로 소유권 기반 조직화와 비소유권 기반 조직화(네트워크와 연대)의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면, 사업체계의 이념형을 분열형(fragmented), 산업지구형(industrial district), 구획형(compartmentalized), 협력형(collaborative)의 4가

표 1. 사업체계의 이념형 구분

	약한 비소유권 기반 조직화	강한 비소유권기반 조직화
강한 소유권 기반 조직화	구획형	협력형
약한 소유권 기반 조직화	분열형	산업지구형

출처 : Jackson and Deeg, 2006:27.

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Jackson and Deeg, 2006).

분열형은 중국 기업처럼 모든 조직화 방식이 낮아서 기업의 활동이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guanxi)’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체계 형식을 뜻한다. 이 사업체계에서 기업 간 경쟁의 정도는 상당히 높고, 조직적 수준의 협력적 문화를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 반면, 제3이탈리아로 대표되는 산업지구형 사업체계에서는 경쟁자 사이에서도 협력이 발생할 정도로 긴밀한 조직화가 나타난다. 기업의 내적, 외적 조직화가 소유권 중심으로 발생하기보다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의 문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구획형은 소유권을 기반으로 자속성이 높은 기업의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하고, 미국이 이러한 유형의 전형으로 일컬어진다. 이런 사업체계의 국가에서는 기업 간 경쟁이 심하고 협력은 공식적인 계약 관계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독일로 대표되는 협력형 사업체계에서도 소유권 기반의 조직화가 강하지만, 이곳에서는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조합주의적 협력과 연대의 문화도 탁월하게 나타난다.

이상의 네 가지 기본 유형은 소유권 및 비소유권 조직화를 기준으로 구분되지만, 소유자 통제, 기업의 규모, 산업 부문 간 조직화 양상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고도조직형(highly coordinated)’과 ‘국가주도형(state organized)’의 이념형도 사업체계론에서 제시된다(Whitley, 2000). 일본의 사업체계가 전형으로 꼽히는 고도조직형은 독일식 협력형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연대적 관계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일본에서 연대의 관계는 대체로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cross-shareholding) 방식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소유권의 의한 조직화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소유와 경영 및 통제의 분리는 일본식 고도조직형 사업체계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반면, 한국으로 대표되는 국가주도형 사업체계에서는 소유와 통제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재벌 총수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형식의 지배구조 형성에 두 가지 핵심 원인이

있다. 첫째, 한국의 재벌들은 국가가 통제하는 은행으로부터 저리 용자의 혜택을 받아 성장했기 때문에 총수와 총수 일가는 손쉽게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둘째, 그런 상황에서 국가와 재벌 총수 간의 긴밀한 유대가 형성될 수 있었고, 국가는 정책의 지침을 따르는 한 총수의 소유권을 보장해주었다. 소유권에 의한 직접적 기업 통제 이외에, 한국식 국가주도형은 미국식 구획형 사업체계와 대체로 유사한 점이 많다.

여섯 가지 사업체계의 특성은 표 2와 같이 지배구조, 경영 및 네트워크 관리 양식, 제도적 관계를 중심으로 특성화시킬 수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소유권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직접통제, 연대결성, 시장거래로 구분되며, 소유권과 연대의 영향력도 유형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이다. 경영 및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기업 내외의 관계들이 고려가 된다. 내적으로는 하부조직 및 노동자와의 관계가, 외적으로 타 기업과의 관계를 통해서 각 유형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권한 공유의 정도, 협력과 경쟁의 양상, 지식과 혁신의 흡수 능력으로도 기업 경영과 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성이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관계는 국가의 영향, 산업협회와 같은 매개 조직의 역할, 핵심 금융 시스템의 유형, 직업훈련 체계의 조직화 정도, 노조의 영향력, 기관 간의 신뢰도 등을 통해서 특성이 나타난다.

이처럼 공식적 제도와 사회·문화적 풍토에 의해 차별화되는 “사업체계 간의 질적 차이”(Whitley, 1998:457)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국가는 핵심 스케일로 인식된다. 이탈리아나 독일처럼 지역 사회의 제도적 기반이 사업체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Whitley (1998:454)는 지역적 수준에서 사업체계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체계의 특징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구별”된다고 주장한다.¹⁰⁾ 국가 기반의 법률 체계를 바탕으로 사유재산권이 정의되고 효력을 발휘하며, 공공질서 유지, 이익집단의 조직, 경쟁과 협력 관례의 형성, 금융 시스템 규제,

표 2. 사업체계 유형별 사회적 착근성의 특성

	분열형	산업지구형	구획형	협력형	고도조직형	국가주도형
지배구조						
소유자의 통제 방식	직접	직접	시장	연대	연대	직접
소유권에 의한 조직화	약함	약함	강함	상당함	상당함	강함
연대에 의한 조직화	약함	보통	약함	상당함	강함	약함
기업 경영/네트워크						
권한공유(사업파트너)	약함	보통	약함	상당함	강함	약함
권한공유(노동자)	약함	보통	약함	상당함	보통	약함
기업의 흡수능력	약함	상당함	약함	상당함	상당함	제한적
탁월한 기업형태	기회주의적	장인기업	고립/계층	협력/계층	연합	국가의존적
제도적 관계						
국가의 영향	약함	지역화	약함	상당함	강함	강함
중간 매개 조직의 역할	약함	상당함	제한적	강함	강함	약함
금융 시스템	예측불가	신용(지역)	자본시장	신용	신용	신용(정부)
공공 직업훈련 체계	약함	상당함	약함	강함	약함	약함
노조의 영향력	약함	상당함	제한적	강함	상당함	약함
공식 기관 간 신뢰	약함	보통	강함	강함	상당함	제한적
전형적 사례	중국	제3이탈리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 Whitley(2000:859)를 발췌·수정하여 작성함.

교육 및 직업 훈련에 국가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¹¹⁾

국가 수준에서 형성되는 기업의 사회적 착근성은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초국화하는 과정에서도 꾸준히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Whitley(1998)는 해외에서 투자와 자산의 비율이 상당히 높을 때, 본국보다 훨씬 더 조직화된 제도적 자산을 갖춘 지역이나 국가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 해외 지사와 자국 본사 간의 통합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예외적 상황으로 언급한다. 동시에 그는 상기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초국적기업이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운영상의 일부 변화를 겪는다 해도 출신국의 사업체계에 착근한 경향성에는 관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곧, 기업의 해외활동은 ‘경로의존적’이며, 출신 국가 사업체계의 영향력은 Pauly and Reich(1997)가 미국, 일본, 독일 기업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것처럼 초국적 활동에까지 미친다.

초국적기업의 의사결정은 여전히 출신 국가의 제도와 이데올로기적 전통에 영향을 받는다... 기업이 최초로 발전하기 시작했던 국내의 상황은 전략적 행동에 영원히 각인된다. 국경을 초월한 전략적 제휴, 지역 간 사

업네트워크, 외국인 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국적(corporate nationality)은 여전히 중요하다(Pauly and Reich, 1997:24; Dicken, 2003:227에서 재인용).

국가별 초국적기업 특성의 명백한 차이를 미국, 영국, 일본의 사업체계를 사례로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미국의 초국적기업의 경우, 자국 시장에서 경쟁의 격화로 광범위한 해외직접투자 활동을 펼치고, 비용 절감을 위한 아웃소싱이 초국적 활동의 중요한 동기이며 고위험의 인수합병에도 적극 가담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자본시장에 종속되어 단기 이익을 중시하는 금융 중심의 기업 전략이 우세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기업 운영 방식은 자국의 구획형 사업체계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 앞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 기업은 일반적으로 국가, 매개 조직, 사업파트너, 노동단체 등과의 네트워크가 미약하여 고립적 계층구조의 조직 형태를 지니고, 자본시장 투자자의 소유권에 강한 영향을 받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투자자, 곧 주주 이익의 보장과 확대가 미국에서 기업 운영의 핵심 동력이 되고, 이것은 앞서 언급한 미국 기업의 초국적 활동의 특성에 반영된다.

표 3. 초국적 활동에서 사회적 착근성의 영향

	미국의 초국적기업	독일의 초국적기업	일본의 초국적기업
사회적 착근성			
사업체제 유형	구획형	협력형	고도조직형
지배구조	자본시장 종속 금융 중심 기업 전략	높은 수준의 자치성 보수적 전략	계열사 구조 시장 점유 중심 전략
기업금융	자본시장 > 은행 단기적 관점	자본시장 < 은행 장기적 관점	자본시장 < 은행 장기적 관점
내부거래	보통 수준(아웃소싱 중심 탁월)	높은 수준	상당 수준(일부 아웃소싱)
초국적 활동			
해외직접투자	광범위 아웃소싱	선택적 높은 내부거래 비중	광범위 매우 높은 내부거래 비중
인수합병	고위험	저위험	상당히 저위험
연구개발	일부(다각화)	일부(전문화)	매우 제한적

* Dicken(2003:228)을 발췌·수정하여 작성함.

투기적 자본시장에 착근한 미국의 구획형 사업체제와는 달리, 표 3에 나타나는 것처럼 독일과 일본에서는 보다 긴밀한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 사업체제가 발달하였다. 이해당사자 간의 유기적 연대를 기반으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 독일식 협력형 사업체제와 일본식 고도조직형 사업체제 사이에 공통된 특징이다. 금융체제가 은행의 ‘참을성 있는 투자’를 근간으로 마련되어 있고, 기업 운영에서 국가와 매개조직의 영향력이 상당하며, 장기적 거래와 신뢰 기반의 기업 간 네트워크가 탁월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기업과 노조 사이에 우호적 관계가 형성된 것도 독일과 일본 사업체제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표 2 참조). 그래서 독일과 일본의 초국적기업들의 해외 활동은 비용 절감을 위한 아웃소싱보다 내부거래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미국의 초국적기업에 비해 위험도가 낮은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해외 연구개발의 경우 독일과 일본은 차이를 보이는데, 독일 기업의 경우 전문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연구개발 활동을 펼치지만 일본 기업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이 자국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¹²⁾ 이러한 차이는 국내 관계를 중시하며 계열사중심의 지배구조를 형성한 일본 기업의 특색과 관련된다.

IV. 결론: 요약 및 토론

최근 인문지리학 전반의 관계적 전환과 마찬가지로 경제지리학 분야에서도 ‘관계적’ 지역 발전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이는 지역을 내부와 외부 간의 뚜렷한 경계가 있는 곳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지역과 국경을 초월한 행위자 사이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공간경제와 지역발전의 문제를 분석, 이해, 설명하려는 사조이자 실천 양식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담론에서는 전략적 커플링의 개념을 통해 초국적기업과 지역적 자산 사이에 발생하는 시너지를 설명하고(이재열, 2016), 지역의 학습과 혁신의 환경 이해에서 영토적 네트워크의 효과뿐 아니라 ‘글로벌 파이프라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영토적 착근성과 네트워크 착근성의 동시 작용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며 신지역주의에서 로컬에 대한 페티시즘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초국적기업과 같은 관계적 행위자의 사회적 착근성에 대한 탐구 및 이해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현재의 학문적 지형에서는 지역발전의 문제를 해외기업의 사회-문화-제도적 배경과 연관성 속에서 분석하여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경제지리학 및 지역발전에 관한 지식의 간극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본 저자들은 사업체제론에서 기업의 사회적 착근성을 이해하는 방식을 검

토하였고, 구체적 논의 과정에서 세 가지 특성에 주목하며 사업체계론의 유용성을 살폈다. 첫째,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기업 조직 담론에서 초국화를 ‘지리적 확장→학습→내부화’의 선형적이고 순조로운 과정으로 이해하며 초국적기업의 사회적 착근성 문제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업체계론은 기업 지배구조, 경영 방식과 네트워크, 제도적 관계의 문제에 주목하며 국가 수준에서 형성되고 지속되는 사회적 착근성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다. 둘째,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사업체계의 성립과 발전에서 지리적 다양성을 강조하며 신자유주의적 경제 세계화 담론에 만연한 수렴성 가설과 가정의 맹점을 극복할 수 있다. 셋째, 사업체계론은 국가 수준에서 구별되는 초국적기업의 전형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사업체계론이 사회적 착근성을 탐색함에 있어서 결점이 없는 유일한 개념은 아니다. Hess(2004)와 Peck(2005)이 밝히는 것처럼, 경제와 시장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로 제도화될 수밖에 없다는 Polanyi(1944)의 선구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의 세계화 맥락에서 차별화된 기업의 사회적 착근성에 주목하는 경제사회학 담론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주의 다양성론(varieties of capitalism)’에서 금융과 지배구조, 산업관계, 교육훈련, 기업관계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을 토대로 기업 발전과 전략 수립에 사회적 착근성을 논의하고(Soskice and Hall, 2001),¹³⁾ 상이한 방식으로 Hollingsworth and Boyer(1997)는 공식화된 제도와 함께 사회문화적 규범, 곧 ‘적절성의 논리’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생산체계(social systems of production)’를 개념화하여 기업 활동과 전략이 사회, 문화, 제도적 토대 위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제사회학의 사회적 착근성 담론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과도한 국가 중심성과 경로 의존성의 강조로 다양한 스케일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정치)경제지리학의 국가 재구조화 논의에 비해 섬세함이 부족하다(Peck 2005; Peck and Theodore, 2007). 두 번째 문제는 사회적 착근성을 범주화하는데 있어 지리적 스케일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앞서 제시했던 표 2의 사업체계론 범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대체로 지역의 수준에서 형성되는 산업지구형 사업체계가 국가 스케일의 사업체계와 동일한 수준의 유형으로 언급되었다.

이런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여 구체적인 사례 분석에 활용한다면, 사업체계론은 관계적 지역발전의 문제를 초국적기업의 사회적 착근성과 결부시켜 탐구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초국적기업이 한국에 입지하는 이유와 과정은 출신 국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해외기업이 한국에서 지사나 분공장의 입지 장소나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출신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가? 한국에서 해외 초국적기업의 현지화 과정은 출신 국가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어떤 국가의 초국적기업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 현지화하는가? 해외 초국적기업 고유의 사회적 착근성은 우리나라에서 지역발전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 본 논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업체계론은 이와 같은 관계적 지역발전 현안 탐구의 출발점에서 분석과 연구의 지침으로서의 유용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註

- 1) 본 저자들 또한 이런 입장을 수용하여 한국 사회에 적용한 바가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이 꾸준히 지속되는 학문적 성찰의 과정이자 성취로 이해되었으면 한다.
- 2) 여기서 ‘트랜스로컬’은 영역적 구분을 초월하는 ‘로컬들 간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언급되었다.
- 3) 한국 경제지리학계에서 착근성은 학자에 따라 ‘배태성’, ‘뿌리내림’ 등으로도 언급된다. 본 논문에서 착근성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재현 양식이 다른 것보다 우수하다는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다. 영토/영역/토착성의 가정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저자들은 착근성을 다소 위험한 재현 양식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오해의 가능성은 지난 몇 년간의 논의를 통해서 이미 상당 부분 제거되었다고 판단하여, 본 저자들은 굳이 재현 방식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토(영역)적 착근성, 사회적 착근성, 네트워크 착근성 등의 다양한 유형화로 상기 우려는 이미 해결되었고, 어떤 용어를 사용하던지 경제지리학이라는 ‘실천 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s)’의 구성원들은 그 의미를 본능적으로 쉽게 파악할

-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저자들은 초기 업적에서 착근성보다는 배태성, 뿌리내림이라는 재현 양식을 더 선호했었다.
- 4) 사회적 착근성은 대체로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문화, 제도적 기반에 대한 경제활동의 착근성, 영토적 착근성은 장소나 지역에서 펼쳐지는 경제활동의 맥락과 관련되는 착근성, 네트워크 착근성은 특정 행위자나 행위자 집단이 형성하는 연결망에 영향을 받는 착근성을 의미한다.
 - 5) 근거이론이란 이론 하에서 가설을 제시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연역적 방법론과는 달리, 경험에 기반을 둔 실증 연구에서 이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이면에서도 정성적인 연구 방법을 일컫는다.
 - 6) 그러나 본 논문에서 논의는 한국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 간 기업 활동의 유의미한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업체계론을 개괄적으로 살핀다.
 - 7) 이런 점 때문에 Hymer의 초국적기업 개념화를 ‘자원기반 이론’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 8) 이런 답론은 수직적 통합을 통해 기업이 성장한다는 Williamson(1975)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관점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 9) 사업체계론에 등장하는 이념형(ideal-type) 구분을 그대로 받아들여 결정론적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본 논문에서 이념형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이념형 간의 본질적 구분을 당연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정의되고 구별되는 기업 활동의 문화-제도적 차이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재현 및 실천 양식은 종종 ‘전략적 본질주의(strategic essentialism)’라고 일컬어진다.
 - 10) 제3이탈리아 지역(Piore and Sabel, 1984)와 미국의 실리콘밸리(Saxenian, 1996)가 지역적 수준의 사업체계를 형성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Scott, 1988). 독일에서도 Baden-Württemberg와 Saxony 지역의 ‘탈중앙화된 산업질서(decentralized industrial order)’와 Ruhr 지방 중심의 ‘자족적 산업질서(autarkic industrial order)’가 구별된다(Herrigel, 1996). 이 두 지역체계의 경합을 통하여 독일의 국가적 산업질서가 형성되었다.
 - 11) 사회적 착근성의 핵심 스케일에 대해서 경제지리학자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 예를 들어,

Dicken(2003:226)은 “[기업의] 착근성은 여러 스케일에서 발생하지만, 국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펼친다. 덧붙여, 그는 국가가 “제도와 실천 양식의 용기(container)와 같은 역할을 하여 특정한 형태의 기업을 양산한다”고 강조한다.

- 12) 두 체계 간의 두드러진 차이는 국가 개입의 방식과 공공 직업 훈련 체계 및 노동협상의 양상에서도 나타난다. 국가의 개입은 일본의 고도조직형 사업체계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 국가가 은행에서 자본 투자의 배분, 기술 획득, 신산업 개발 등의 문제까지 관여한다. 반면, 직업훈련 체계 마련의 공적 성격과 노동에 관한 단체협약에서 국가의 역할을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난다. 노동 규제와 직업 훈련 모두 기업 수준에서 결정되어 실행되기 때문이다.
- 13) 기업 활동의 국가 간 차이를 비교하는 사업체계론과 달리 자본주의다양성론은 제도와 기업문화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들’ 간의 차이를 범주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경환, 2014, “글로벌 시대 인문지리학에 있어서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의 적용 가능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1), 57-78.
- 박경환, 2016, “대안 정치를 위한 공간적 상상의 재고(再考): Doreen Massey(1944~2016)의 『공간을 위하여』(2006)에 대한 논평,”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1), 105-123.
- 박경환·이영민·이용균 역, 2016, 「공간을 위하여」, 서울: 심산(Massey, D., 2005, *For Space*, London: Sage).
- 이용숙·이돈순, 2015,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쟁의 유용성과 한계,” 공간과 사회, 25(2), 14-51.
- 이재열, 2010, “산업클러스터 이해의 지평확장: 방법론적 지역주의를 넘어서,” 한국경제지리학회 e-Newsletter, 3, 3-4.
- 이재열, 2016,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담론의 진화: 기업 및 산업 중심 거버넌스 분석을 넘어서,” 대한지리학회지, 51(5), 667-690.

- Amin, A., 1989, Flexible specialisation and small firms in Italy: Myths and realities, *Antipode*, 21(1), 13-34.
- Bartlett, C. and Ghoshal, S., 1990, Managing innovations in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 in Bartlett, C., Doz, Y., and Hedlund, G., eds., *Managing the Global Firm*, London: Routledge, 215-255.
- Bathelt, H., 2006, Geographies of production: growth regimes in spatial perspective 3 - toward a relational view of economic action and polic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0(2), 223-263.
- Bathelt, H., Malmberg, A., and Maskell, P., 2004, Clusters and knowledge: Local buzz, global pipelines and the process of knowledge cre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8(1), 36-51.
- Boggs, J. and Rantisi, N., 2003, The 'relational turn' in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3(2), 109-116.
- Coe, N., Hess, M., Yeung, H., Dicken, P., and Henderson, J., 2004, 'Globalizing regional development: A global production networks perspectiv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9(4), 468-484.
- Dicken, P., 2003, *Global Shift: Reshaping the Global Economic Map in the 21st Century*, 4th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Dunning, J., 2001, The key literature on IB activities: 1960-2000, in Rugman, A. and Brewer, T., eds.,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Busi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6-68.
- Herrigel, G., 1996, Crisis in German decentralized production: Unexpected rigidity and the challenge of an alternative form of flexible organization in Baden-Württemberg,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3(1), 33-52.
- Hess, M., 2004, 'Spatial' relationships?: Towards a reconceptualization of embeddednes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8, 165-186.
- Hess, M. and Yeung, H., 2006, Whither global production networks in economic geography? Past, present, and future,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 1193-1204.
- Hollingsworth, R. and Boyer, R., 1997, *Comparative Capitalism: The Embeddedness of Instit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ymer, S., 1960,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Investment,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Economics, MIT.
- Jackson, G. and Deeg, R., 2006, *How Many Varieties of Capitalism?: Comparing the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es of Capitalist Diversity*, Cologne: Max Plank Institute for the Study of Societies.
- Jones, A., 2014, Geographies of production I: Relationality revisited and the 'practice shift' in economic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8(4), 605-615.
- Jones, G., 1996,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London: Routledge.
- Kristensen, P. and Zeitlin, J., 2005, Local Players in *Global Games: The Strategic Constitution of a Multinational Corpo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cKinnon, D. and Cumbers, A., 2011, Introduction to Economic Geography: *Globalization, Uneven Development and Place*, London: Blackwell.
- MacKinnon, D., 2012, Beyond strategic coupling: Reassessing the firm-region nexus in global production network,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2(1), 227-245.
- MacLeod, G., 2001, New regionalism reconsidered: Globalization and the remaking of political economic spac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5(4), 804-829.
- Murray, F., 1987, Flexible specialisation in the 'Third Italy', *Capital & Class*, 11(3), 84-95.
- O'Neil, P., 2008, Bringing the qualitative state back into economic geography, in Barnes, T., Peck, J., Sheppard, E., and Tickell, A., eds., *Reading Economic Geography*, Malden: Blackwell, 257-270.
- Pauly, L. and Reich, S., 1997, National structures and multinational corporate behavior: Enduring differences

- in the age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51, 1-30.
- Peck, J., 2005, Economic sociologies in space, *Economic Geography*, 81(2), 129-175.
- Peck, J. and Theodore, N., 2007, Variegated capitalism,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1(6), 731-772.
- Piore, M. and Sabel, C.,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Possibilities for Prosperity*, New York: Basic Books.
- Polanyi, K.,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Economic and Political Origin of Our Time*, New York: Rinehart.
- Powell, W. and DiMaggio, P., 1991,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Sabel, C., 1988, Flexible specialisation and the re-emergence of regional economies, in Hirst, P. and Zeitlin, J., eds., *Reversing Industrial Decline?*, Oxford: Berg, 17-78.
- Saxenian, A., 1996, *Regional Advant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cott, A.J., 1988, Flexible production systems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rise of new industrial spaces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2(2), 171-186.
- Scott, A.J., 1998, *Regions and the World Economy: The Coming Shape of Global Production, Competition, and Political Or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ott, A.J. and Storper, M., 2003, Regions, globalization, development, *Regional Studies*, 37(6), 579-93.
- Soskice, D. and Hall, P.,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orper, M., 1997, *The Regional World: Territorial Development in a Global Economy*, New York: Guilford Press.
- Vernon, R., 1966,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0, 190-207.
- Whitley, R., 1992, *Business Systems in East Asia*, London: SAGE.
- Whitley, R., 1998, Internationalization and varieties of capitalism: The limited effects of cross-national coordination of economic activities on the nature of business system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5(3), 445-481.
- Whitley, R., 1999, *Divergent Capitalism: The Social Structuring and Change of Business Syst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hitley, R., 2000, The institutional structuring of innovation strategies: Business systems, firm types and patterns of technical changes in different market economies, *Organization Studies*, 855-886.
- Whitley, R. and Kristensen, P., 1996, *The Changing European Firm*, London: Routledge.
- Williamson, O., 1975, *Markets and Hierarchies*, New York: The Free Press.
- Yeung, H., 2005, Rethinking relational economic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0(1), 37-51.
- 교신 : 박경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kpark3@gmail.com)
- Correspondence : Kyonghwan Park, 61186, 77 Yongbong-ro, Buk-gu, Gwangju,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mail: kpark3@gmail.com)
- 투 고 일: 2018년 3월 30일
심사완료일: 2018년 4월 12일
투고확정일: 2018년 4월 13일